

임실군 국가예산 확보 나서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현안사업 집중 점검

임실군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군민들의 삶을 바꿀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과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현안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심 민 군수는 올해 주요 현안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군은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응 및 주요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부처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동향 파악을 적극 나서는 등 공격적인 예산확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올해 국가예산 사업과 중앙 공모사업을 통해 총 55건에 총 사업비 4,459억원(국비 3,114억원)을 목표로 설정, 이 중 총 33건에 총 485억원(국비 282억원)의 공모선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준비와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계전문가와의 공조체계 한층 강화해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지난 해 반세기만에 타당성 용역비 국비 확보에 성공한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개설(800억)과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446억),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70억), 임실 치즈테마공원 조성사업(118억), 도시재생뉴딜사업(100억) 등 미래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우선 순위에 두고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미 군은 굵직굵직한 주요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지난 달부터 전북도 및 중앙 부처, 국회 등을 방문,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사업별 다각적인 노력과 단계별 논리를 개발해 2019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속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는 물론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강화해 지역현안 해결과 파급효과가 큰 옥정호 순화도로 개설사업과 같은 굵직한 사업들의 대응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군이 이처럼 국가예산사업에 발벗고 나선 것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의 동력을 확보해, 마지막까지 지역과 주민을 우선하는 군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심 민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심 민 군수는 "민선 6기는 임실군의 4천억 예산시대를 연 역동의 시기로, 국가예산 확보가 살기 좋은 임실을 만드는 필수조건이라 생각 한다"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부처별 예산편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부처예산 중기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금부터 5월까지 수시로 부처를 방문, 현안사업의 예산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 보다 많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3월 중으로 2019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중점관리 사업을 확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직원 워크숍과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예산반영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실=진충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비만 관리 교실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지역 주민의 비만관리를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 비만(대사증후군)관리교실 운영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대사증후군이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인하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죽상경화증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대사증후군은 치료법이 따로 없고 식이요법·운동요법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원 비만교실은 오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3회 일정으로 2개월 동안 체계적인 비만관리를 위해 사상체질 진단과 함께 한의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요리강사, 스포츠마사지강

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비만 이론 교육과 식이교육, 운동지도, 개별 상담 및 한방치료(이침, 투약 등), 유산소운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14일이고, 신청대상은 만 20세 ~ 55세 미만 지역주민이다.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체계측 측정(인Body)검사, 혈액검사, 혈압, 혈당검사 등과 한의사 개별상담을 실시한 후 최종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신청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한방재활담당(620-7977,797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빗물 이용 시설 설치 사업 추진

남원시가 버려지는 빗물을 생활용수로 재활용 해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수돗물을 절약하는 '소형 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소형 빗물 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이나 벽면 등에 빗물을 모아 간단히 여과 과정을 거친 뒤 고도의 정수가 필요하지 않는 조경이나 청소 등의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남원시는 지역 내 개인주택과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등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7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빗물 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이나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소유자는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지원 설치 계획서를 첨부해 환경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농기센터, 월동 작물 현장지도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가 월동 작물 생육관리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겨울나기 전 생육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생리장애와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므로 병해충 방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습해를 입지 않도록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습기가 많고 날씨가 추울 때는 서릿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सूत처 올라온 마늘·양파는 땅을 잘 돌려주고 휴묘기를 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해충 예방과 다수확을 위해 예찰, 생육관리지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봄을 알리는 '순창 전통 장 담기'

장맛 장인과 장 담고 익혀 집으로 직접 배달

봄을 알리는 순창 전통 장맛이 전국의 도시민을 순창고추장민속마을로 불러 모았다.

군은 지난 3일 순창고추장민속마을에서 도시민과 전통 장 기능인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 담기 행사를 진행해 도시민들에게 이색적 농촌체험을 선물했다.

이날 장담기 행사는 아파트 등 주거문화 변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장을 담가 먹는 가정이 점차 사라져 가는 실정을 감안해 옛 전통 장맛을 집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통 장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기능인들과 함께 참여자들이 100% 순창에서 직접 재배한 콩과 고추를

활용해 옛 방식으로 장을 담고 순창에서 잘 숙성시켜 6개월 후 도시민의 집으로 직접 배달해 준다.

도시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을 방문해 재미있는 체험행사는 물론 가정에서 일년 정도 쓸 수 있는 건강한 된장, 간장 등을 배달 받을 수 있는 일식이조의 행사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복입고 고추장 민속마을을 거닐며 사진찍기, 청국장 된장을 이용한 집밥 상차림 행사, 인절미, 튀밥 만들기, 발효소스도쿄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돼 순창의 대표 문화콘텐츠의 맛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월대보름 맞이 흥부골 인월 달맞이 축제

지난 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제19회 흥부골 인월 달맞이 축제'가 2,000여명의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월면 립천둔치 행사장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축제는 터울림행사, 무료기훈 씨주기, 소원문 달기, 기원제,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휘영청 떠오른 밝은 달과 힘차게 떠오르는 달집이 마음을 모아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였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흥부골 인월 달맞이 축제는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대표적인 어울림의 행사다. 인월 자율방범대(대장 김병진)에서는 대보름 음식인 오곡밥, 부럼, 귀밝이 술 등을 준비해 축제 참여자들과 함께 나눠 좋은 호응을 얻었다.

진명현 인월면장은 "인월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인월발전협의회, 이장단 등 관내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흥부골 인월 달맞이 축제가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개강식

순창군이 5일 농업기술센터 다목적강당에서 2018년 '농업농촌혁신대학' 개강식을 갖고 지역농촌 핵심인력 육성에 본격 나섰다. 이날 개강식에는 장명균 부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졸업생과 11기 입학생 등 총 100여명의 관련자들이 참석해 농업농촌혁신대학에 입학하는 교육생들을 축하했다.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고 지역농업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청년농업인양성을 위해 진행되는 농촌인력 양성 교육이다.

오는 6월부터 12월 졸업일까지 전국의 농업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반 별로 모두 35강좌를 진행 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